

1/11/15

설교 제목: 나는 누구인가?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 씬 : 고후 5:17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공원에 공원 관리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꾀죄죄한 옷차림을 한 한 남자가 아직도 공원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남자는 하루 종일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인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하루 종일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거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청소부는 좀 더 큰 소리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물었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제발 나도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소”

이 사람이 바로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질문은 자기의 내면을 향한 질문입니다. 육체를 뛰어넘어 영혼을 찾는 질문입니다.

육체를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1) 죄덩어리다. 죄에 둘러 쌓여 있다. 죄와 정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이 인간이다.
- 2) 허무하고 무의미한 존재다. 삶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수가 없다.
- 3) 절대적인 무로 돌아간다. 사람은 누구든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이치이고 죽고 나면 안개같이 사라지고 만다.

한마디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했는가? 보시겠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쓴 전도서입니다.

(전 1:2-3)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 2:22)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전 2:23)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약 4: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얼마나 절망적인 표현입니까?

결국 성경도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절망스러운 존재가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이토록 절망스럽게 지은셨던가요?

아니지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뛰어 놀며 죽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고로 이 모든 것이 깨집니다.

(창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 3: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 3: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저주받은 땅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먹을
것을 위해 땀을 흘려야 생존할 수 있는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에 대해, 인간에 대해 성경은 절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란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이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누군가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 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를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 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절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건져내 주기 위해 절망의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절망의 바다 속에서 우리를 움켜 쥐고 있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무시무시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이 되어 절망의
바다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을 당신이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고후 5: 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동서고금을 통해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철학자들이 인간을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 보겠다고 발버둥쳤습니까?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는 인간을 구원하기는 커녕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기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위대한 능력자이십니다.

(고전 15: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6)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전 15: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예수그리스도!

그러므로 절망적인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허우적이다가 예수님 손을 잡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냄을 받아 희망 충만한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용서받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엡 1: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바다에서 절망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이미 죄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 예수님을 만나 은혜로 의롭게 된 자의 삶

(요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참 길을 발견했고, 바로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얻었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은 산산조각으로 부수어졌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에 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길과 진리를 발견했을 뿐만아니라 생명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증명되지 않은 많은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산다, 저 길로 가면 안전하다, 나를 믿으라, 내가 진정한 구원자이다,
떠들어 대지만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느냐고요?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로 증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간 사람, 그를 믿고 따른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던 자 이외에 그 누가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그 길을 가면 진실로 천국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죽어 부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가르침은 모두 헛 것입니다.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나같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첫 열매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인생을 가리켜 일생이라고 부르지 이생이니 삼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과 진리를 찾고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회복 할 수있는 길이 막혀 버립니다.

우리는 때가 허락하는 한 천국을 침노해야만 합니다.

천국은 오로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요즈음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다. 절대 진리는 없다. 진리는 언제나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길과 진리를 잃어 버리고 방황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절대 진리를 버리고 절망적인 인간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절대 절망에서 빠져 나와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빛과 영광만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김춘근 박사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JAMA(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미국을 위한 예수각성 운동)를 창시하시고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의 신앙 운동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책 「Why Me?」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단돈 200 불을 들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30 대 초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페퍼다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지 4 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도 잠시, 37 세라는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일년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게 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접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젊은 나이에 처자를 두고 죽어야 합니까? 왜 제가 죽어야 합니까?"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이시라면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나의 병을 고쳐서 다시 살게 하실 수는 없는지를 그분께 물어보고 매달리리라'결심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조그마한 집을 빌려 머물면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네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 가지만, 실제로 네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 가는 것은 모르느냐?"

순간 김춘근 박사의 눈앞에 지금까지 그가 지었던 모든 죄가 영화와 같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목을 무려 52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적어서 믿음 생활 22 년 동안,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삶을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밤새도록 회개하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환상 중에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광채를 발하며 나타나셔서 그를 꼭 껴안아 주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세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날은 김춘근 박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날입니다.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종교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길이요,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흘린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위대한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사는가?

더이상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이제 길과 진리되신 예수님을 만나 믿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비굴하지 않게 세상을 이기며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